

삶속에서의 디자인 연구

테렌스 콘란의 작업을 중심으로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디자인

동)도안하다. 계획하다. 목적하다. 의도하다.

명)마음속에 품은 계획...

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옥스퍼드 영어 사전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으며, 디자인 속에서 살고 있으나

그 답을 찾기란 쉽지 않다.

21세기에 접어들고 많은 것들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누구나 디자인을 배우고 디자인을 할 수 있으나

그 본질적인 디자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어렵게 느껴진다.

디자인이란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에서 출발해서 새로운 것, 즉 창조와 결합되어 어떠한

행위의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으로서 목적에

부합하는 조형의 과정을 일관하는 계획을 말한다. 디자인은

모든 사람의 일상이며,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험의 바탕위에

다양한 표현을 뒷받침하고,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모든 사물과 여러 가지 시스템에 관계한다. 디자인은 인간의

의식적인 노력에 의한 결과이며 현실적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디자인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있다.

TERENCE CONRAN

The Way We Live Now

디자인이란 98%의 상식과 2%의 신비한 요소, 즉 우리가 흔히 예술 또는 미학이라고 지칭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테런스 콘란

Terence Conran



템즈강 상류 킹스턴에서 고무수입상을 하던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Central Saint Martins College of Art and Design에서 텍스타일을 전공하였다. 뛰어난 디자이너이자, 가구 제작자, 레스토랑 운영자, 상품 판매업자 그리고 1960년대 가정용 가구계에 혁명을 일으킨 하비타트Habitat 체인의 설립자다. 또한 소매업과 레스토랑 사업의 모회사인 콘란홀딩스Conran Holdings의 회장이자 건축/디자인 회사인 콘란 & 파트너스Conran & Partners의 대표이기도 하다.

콘란 & 파트너스는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주택과 상업용 건물을 디자인했다. 대표적으로는 런던과 뉴욕의 공항 터미널, 도쿄의 롯폰기 힐스 프로젝트, 런던의 버틀러스 워프Butlers Wharf, 영국 전역의 판자촌 재개발 주택 사업, 런던의 그레이트 이스턴Great Eastern 호텔과 마이 호텔My Hotel, 더블린의 피츠윌리엄Fitzwilliam 호텔, 빈의 트리에스테 Trieste 호텔과 방갈로르Bangalore 및 델리의 더 파크The Park 호텔, 일본의 니키클럽Niki Club 호텔 등이 있다. 콘란 숍Conran Shop은 런던, 파리, 뉴욕, 도쿄, 마루노우치, 나가야, 후쿠오카 등지에 있으며, 그 외에도 영국 각지와 뉴욕, 파리, 스톡홀름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 테런스 콘란은 콘텐츠Content사와 벤치마크Benchmark사를 위한 가구도 디자인하고 있다.

1983년 기사 작위를 받았으며, 미네르바 메달, Prince Phillip Designers Prize 등 디자인과 관련하여 많은 상을 받았다. 가족으로는 작가인 아내 셸리 콘란, 디자이너인 아들 재스퍼 콘란과 딸 소피 콘란, 막내 에드먼드 콘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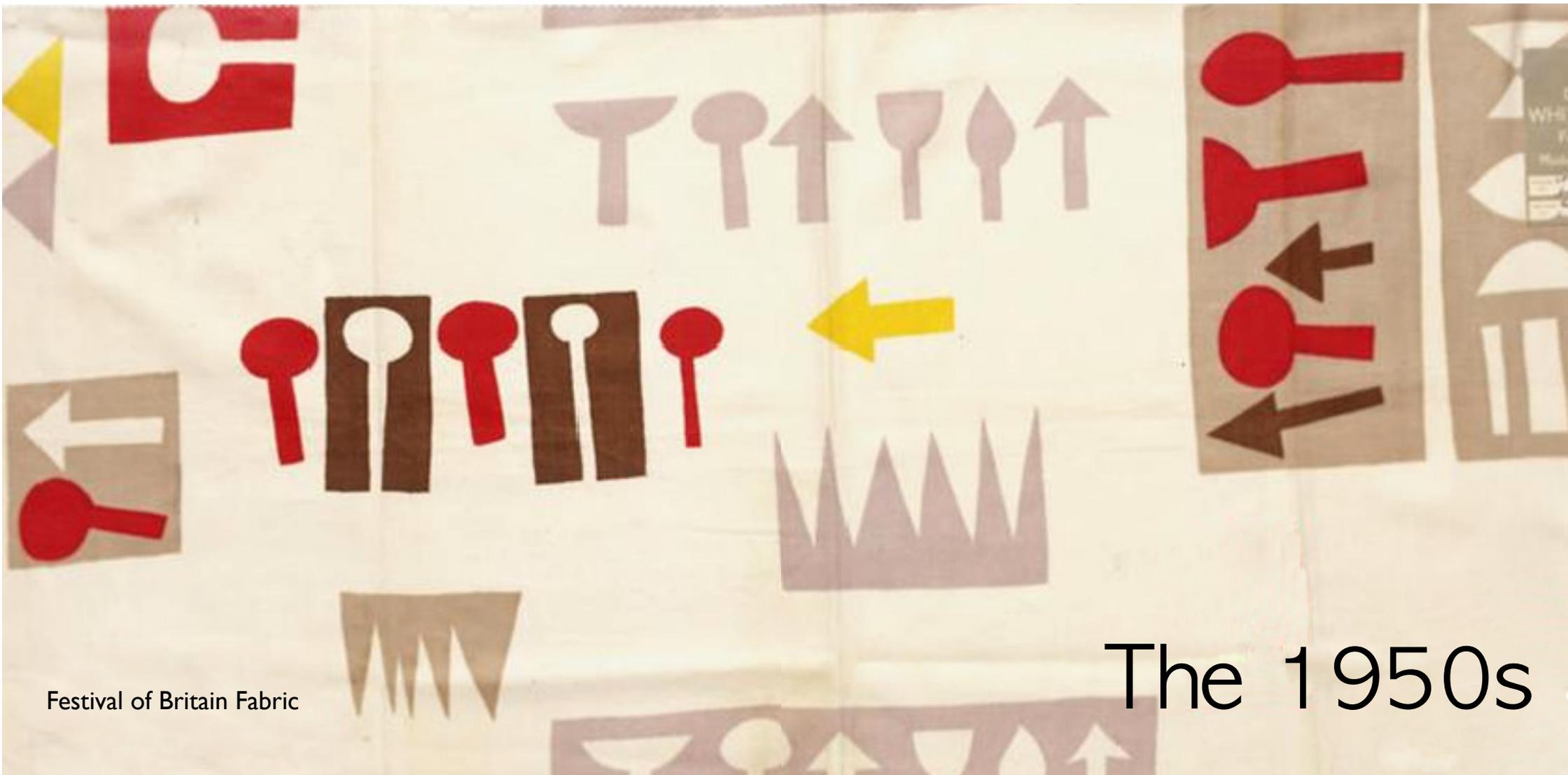
그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것은 디자인된 것인데 썩 영리하게 디자인된 것은 많지 않다고 말한다.
그의 책 [눈으로 보는 지능_Intelligence Made Visible]은 디자인이란 눈으로 보는 지능이라는 뜻이다.
어떤 물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사용하기 불편하다면, 그것은 사려깊게 디자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잘 작동하고 보기에도 아름답다면 비로소 정말로 잘 디자인된 제품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말한다.

현실적이지 않으면 디자인이 아니다.

장 프루베(1901-84, 프랑스 디자이너, 1930년 논리, 균형, 순수를 주창한 선언문을 발표한 현대예술가 동맹을 결성)는 말했다.
"어떻게 만들지 모르는 것은 디자인하지 말라."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재료는 무엇을 쓸 것인가? 어떻게 실용적으로 만들 것인가? 어디에 팔 것인가? 비용은 얼마나 들 것인가?" 현실적인 디자인의 중요성을 오랫동안 주창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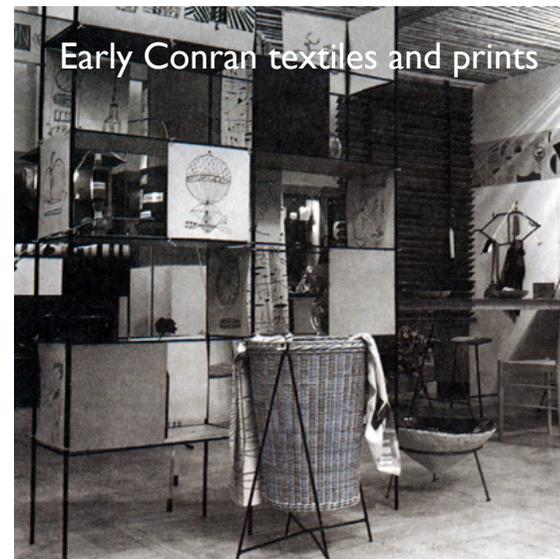
디자인을 할 때는 제품이 누구, 어느 지역사회를 겨냥한 것인지,
거기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어떤지, 취향은 어떻게, 나의 제안을 사람들이 좋아해야만 하는 이유등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어야 한다.
디자이너에게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 다른 디자이너들을 위해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다.



Festival of Britain Fabric

The 1950s

런던 센트럴 세인트 마틴에서 텍스타일 디자인을 공부했던 그는, 21살이 되던 1952년에 노팅힐의 한 지하실에서 손수 디자인한 가구를 만드는 스튜디오를 시작으로 가구 디자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50년대 중반에는 그의 첫번째 레스토랑인 수프 키친Soup Kitchen을 열었으며, 성공적으로 네곳에 체인점을 열게 되었다. 이때에도 가구를 디자인하고 만드는 작업을 계속했던 그는, 몇년 후 사업 파트너에게 수프 키친을 팔고 현재 콘란 레스토랑 계열의 첫번째 레스토랑인 오렐리를 킹스로드에 오픈하였다.



Early Conran textiles and prints



1956

콘랜드디자인그룹을 설립하여 디자인을 시작하였고, 사진은 초기 콘랜 제품으로 텍스타일과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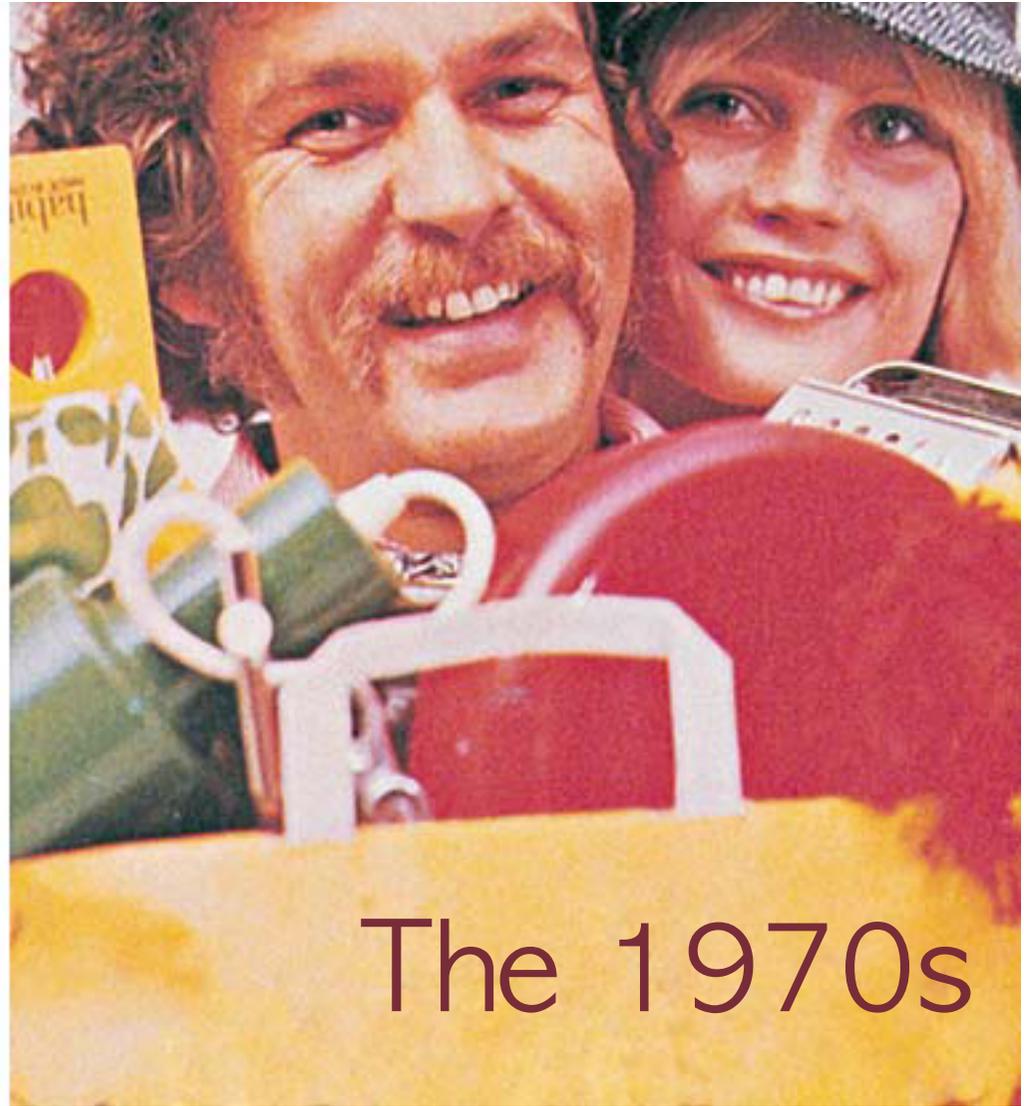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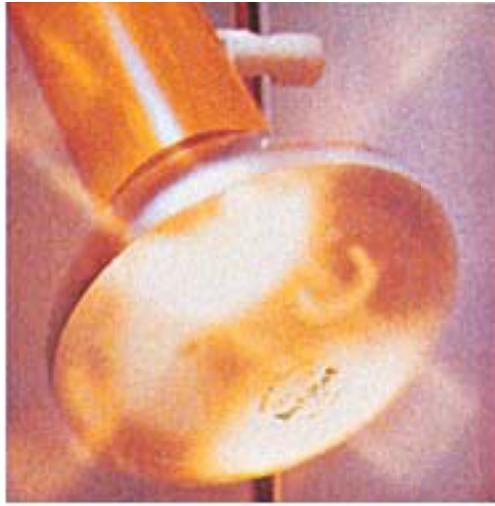


The 1960s

1964년 풀햄 로드Fulham Road에 첫번째 해비타트Habitat 매장을 열고
직접 유통업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으며, 해비타트 매장과 제품군,
그리고 해비타트의 이미지를 하나로 통합하는데 노력하였다.

1964
클래식한 가구와
달리 조립식 가구 판매를
시작하면서
모던한 가구와
클래식 소품과의 코디를 제안





The 1970s



HABITAT

1973
11월 첫번째 콘셉스 오픈,
하비타트에 비하여 독특하고
재미있는 디자인



The 1980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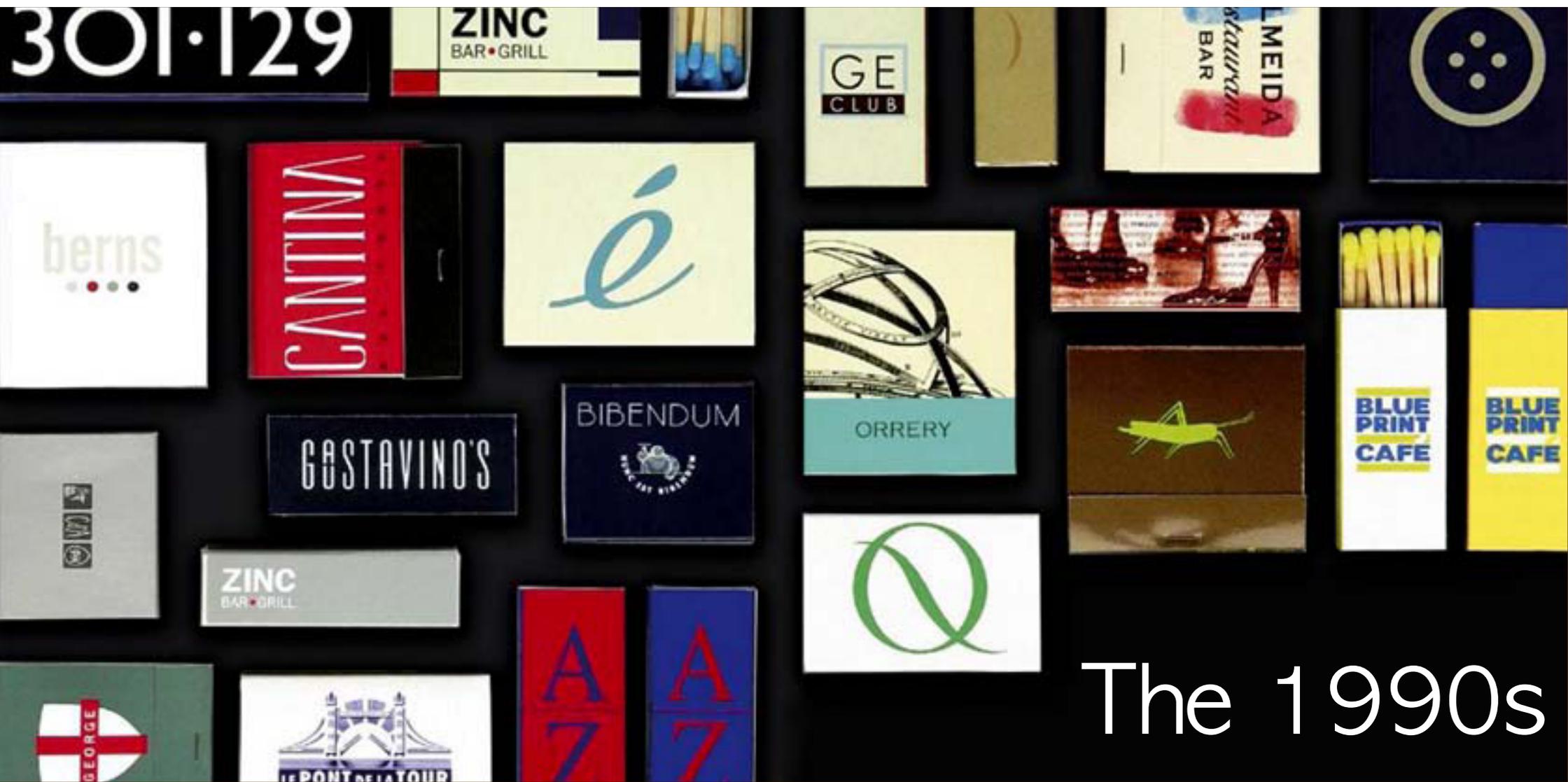
1983년 마더케어Mothercare, 그리고 출판 회사인 옥토푸스 북스 OctopusBooks를 통합하는 콘란 옥토푸스Conran Octopus라는 모회사를 설립하였다.

1987
클래식과 모던의 경계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함.



1989년 디자인 대중 교육을 위한 디자인뮤지엄런던Design Museum London을 개관했다.





The 1990s





The 2000s



DESIGN MUSEUM

MEMBERS MORNING

TERENCE CONRAN THE WAY WE LIVE NOW

The Design Museum invites you to a preview of

Terence Conran
The Way We Live Now
17 November 2011—4 March 2012

16 November, 8.30—10am

Design Museum
Shad Thames, London SE1 2YD
designmuseum.org

Admits two

RSVP by 14 November to
membership@designmuseum.org

Invitation non-transferable

Only at
YOUR M&S
Exhibition kindly supported
by Marks & Spencer

The Orrery Bar originally published
in Architecture and Building,
March 1955. Courtesy of
University of Brighton Design
Archives.

DESIGN MUSEUM

TERENCE CONRAN — THE WAY WE LIVE NOW

16 NOVEMBER 2011—
4 MARCH 2012

DESIGN MUSEUM
SHAD THAMES
LONDON SE1 2YD

DESIGNMUSEUM.ORG
SHOP | FACEBOOK
TWITTER | VIDEO
MEMBERSHIP

Only at
YOUR M&S
Exhibition kindly supported
by Marks & Spencer

DESIGN MUSEUM

SAVE THE DATE

TERENCE CONRAN THE WAY WE LIVE NOW

Deyan Sudjic, Director of the Design Museum, invites you for an evening reception to preview its new exhibition, The Way We Live Now, and to unveil the museum's plans to move to a new home at the former Commonwealth Institute. 15 November, 7—9pm

Terence Conran
The Way We Live Now
16 November 2011—4 March 2012

Design Museum
Shad Thames, London SE1 2YD
designmuseum.org

This invitation is personal
and non-transferable

Postal invitation to follow

Only at
YOUR M&S
Exhibition kindly supported
by Marks & Spencer

Terence Conran, circa 1950.
Photographer Roy Williams

" 디자인을 할 때는 제품이 누구, 어느 지역사회를 겨냥한 것인지, 거기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어떤지, 취향은 어떻게, 나의 제안을 사람들이 좋아해야만 하는 이유 등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디자이너들을 위해 디자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테렌스 콘란의 작업들이었다.

콘란은 디자이너는 사회에 시중드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디자인은 실용성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